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11. 19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 당 자	• 주종완 과장, 전 진 사무관, 조만기 주무관 • ☎ (044) 201-4138, 4139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제주 제2공항 성산 짜맞추기 의혹, 경쟁 후보지 입지조작” 보도 관련

-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(이하 ‘대책위’)가 현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‘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’ 용역 과정에서 입지평가와 절차는 ICAO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.
 - 제주도 지역에 문헌조사, 도상조사 등을 통해 공항 건설·운영 측면에서 입지로 적정한 제주도내 31개 후보지를 선정하여, 3단계의 세부적인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적후보지인 ‘성산’을 결정했습니다.
- 세부사항별 ‘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’ 용역시 조사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① ‘소음분석시 단계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주장’ 관련
 - 소음분석 등 평가항목은 유사한 지표를 통해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지에 대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. (1단계 피해건축물 면적→2·3단계 피해가옥수)

② '단계별 평가시 '신도2' 후보지의 방향, 위치가 변동했다는 주장' 관련

- '신도2' 후보지는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'수월봉 화산쇄설층'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, 기존 지방도와의 저축 등을 피하기 위해
- 다른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**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** 하는 과정을 거쳐, 평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.

③ '신도' 후보지의 경우 소음과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해안쪽으로 이동 시켜야 한다는 주장' 관련

- 대책위에서 제시하는 신도 후보지를 해안쪽으로 이동시키는 대안은, '수월봉 화산쇄설층'의 **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하여,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배제된 바** 있습니다.

□ 끝으로 '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' 용역을 **모니터링** 하기 위해 정부와 대책위간 **협의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 위원회**가 진행 중인 가운데,

- 동 위원회에서 전문가간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, **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** 있음을 밝힙니다.

< 관 (뉴스) >

○ 제주제2공항
-
- 단계별 평 ' . '
- ' . '
시키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전 진 사무관(☎ 044-201-41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